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산호수공원-원당화훼단지 두 곳서 동시 개최, 화훼 산업 강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유라시아의 봄'...꽃세상 탈바꿈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 두 곳에서 열린다. 그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던 꽃박람회는 올해부터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원당화훼단지 '고양 플라워 비즈니스 페어'와 함께 개최된다. 꽃박람회 장소인 일산호수공원은 축제 기간에 꽃 세상으로 탈바꿈해 관람객이 봄을 만끽할 수 있다. 고양 플라워 비즈니스 페어는 고양시의 우수 화훼류를 비롯해 국내·외

신품종, 신제품 기자재를 전시하고 화훼 품평회, 상담회, 세미나 등도 열릴 예정이다. 야외 정원에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표현한 '한라에서 백두까지', 실내에는 평화를 향해 뻗는 유라시아 철도의 모습을 형상화한 '천지에서 본 유라시아' 정원이 마련된다.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작가 7명이 참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화훼 예술도 선보인다. 콜롬비아, 네덜란드 등 각국의 대표 화훼류를 전시하는 국가관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화훼박람회개최 기구연합'의 특별 전시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꾸미는 '고양시민 가든쇼'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고양시민 가든쇼를 확대해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사랑, 고양, 평화를 주제로 100개의 정원을 연출한다. 행사 주최 측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화훼 소비를 늘려 농가가 많은 수익을 보도록 화훼 쿠폰제를 시행한다. 입장권에 포함된 1천원 상당의 쿠폰을 고양화훼직판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원당화훼단지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일산호수공원은 문화축제로 행사가 열릴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9 고양국제 꽃박람회

4.26.📅 - 5.12.📅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원당 화훼단지 일원

문의

(재)고양국제꽃박람회
031-908-7750~2
www.flower.or.kr